

말씀의 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마태복음 16:16~20>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도 말씀으로 만들어진 천지만물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장 먼저 찾아온 증상은 원망, 비판, 남탕의 말들을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써 짐승들의 이름을 선포하고 만물을 다스렸던 아담이 가장 먼저 변해버린 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기 전의 아담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케하셨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말씀으로 죄사함도 선포하셨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 하셨습니다. 세상도, 자연의 질서도, 인간의 영혼도, 육체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도 말로 주셨습니다(마태복음 10장, 누가 복음 10장). 특별한 도구를 주신 것도, 임명장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로써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능력을 실재로 가진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였던 대로 말로써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앓은뱅이에게 말로써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 말의 능력은 현장에서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말로 설교해서 수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말로써 유지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거룩한 언어의 말로써 다스리도록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내뱉은 말들을 더욱 주의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믿음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입술은 영적 전쟁터임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생활의 핵심을 조목조목 짚어주는 신약의 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총 5개장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는 언어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지 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에는 수많은 시간을 공들인 우리 인생의 숲을 삼시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가야할 방향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키가 바로 혀이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은, 말의 재갈과 고삐라는 표현, 배의 키와 그것을 조종하는 사공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언어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끌어감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고삐, 여러분 인생의 키를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술이 주인이 없이 여기저기 마음대로 뛰다니는 야생마처럼 아무렇게나 말하고 기분이나 감정대로 툭툭 내뱉는 입술이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삐와 인생의 키를 조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주님의 손에 확실히 붙들리어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기도하고 선포하는 입술로,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입술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입술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눅 11:53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단은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말을 재료삼아 틈을 타며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따라서 입술이라는 영적인 고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잠 18:7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왜 가족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가정이 깨어집니까? 왜 지체들과 분쟁이 생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에 금이 갑니까?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주 작은 나쁜 말이 불씨가 되어 온 가족 관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모든 관계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십시오. 입술을 내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생활은 무참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믿음의 고백위에 세워졌습니다. 또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라는 말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주류를 이루는 해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지며, 공동체 멤버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고백으로 세워졌기에, 유지도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고백의 연속입니다. 신앙고백, 찬양, 말씀선포, 아멘으로 화답, 통성기도, 이후 교제의 시간... 등 전부 교회에서는 고백이 아름답게 이뤄질 때 건강하고도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 삶에서도 전도하는 입술, 예수를 주라 가르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소리, 찬송소리, 믿음의 나눔들이 활발하게 잘 이뤄지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에서 좋은 신앙고백은 없고, 늘 모이는 비판, 남의 말, 불평불만과 원망, 싸움의 고백만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두란노 교회에서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만을 말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깨달게 하신 약속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입술을 잘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 7. 10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7. 17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시편 108편 1~6절

말 씬 선포 ----- 이 강화 목사

"변화의 시작, 마음을 정하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